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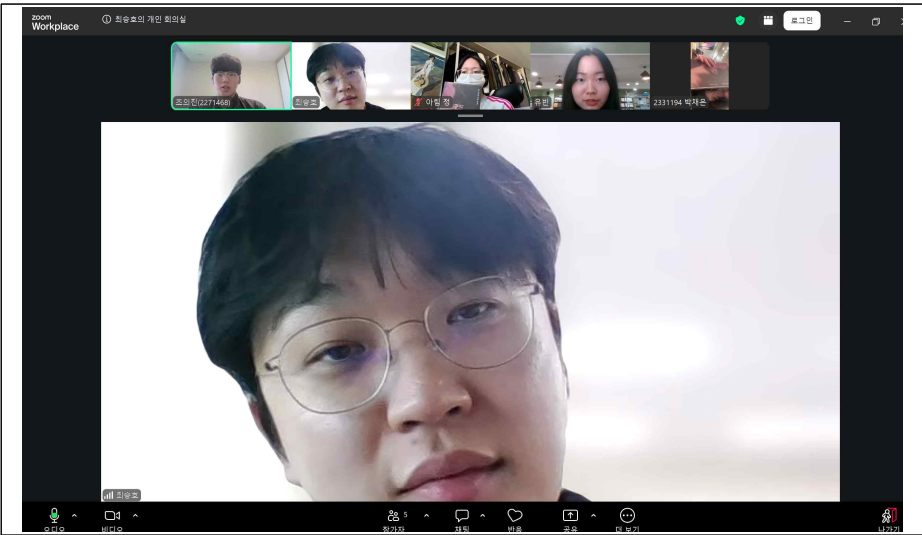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책갈피

1주차	일시	3월 30일 10 : 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3F-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유빈(2411121)	O
		정아림(2651075)	O
		박채은(2331194)	O
조의진(2271468)		O	
진도	도서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진도페이지:	9p. ~ 68 p.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김유빈, 박채은, 정아림, 조의진]</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조의진>: 처음 책을 읽었는데 첫 부분 내용이 잘 읽히지 않아서 2번 정도 다시 읽었고, 외모지상주의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읽어봐야 알 것 같다.</p> <p><박채은>: 초반부를 읽으며 주인공의 정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p> <p>첫 장에는 주인공과 그녀의 사랑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p> <p><정아림>: 감정이나 상황을 작가만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독자에게 드러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외모와 상처라는 주제를 깊이 다루며 읽는 과정에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인지, 학습에 의한 것인지라는 질문을 떠올려볼 수 있었다.</p> <p><김유빈>: 처음 남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 신기했다. 아직 둘의 서사를 몰라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애뜻한 마음과 그날의 날씨나</p>		

		<p>풍경이 인상적으로 적혀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다.</p> <p>2주차부터 각자 정해진 분량을 읽고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질문을 1~2개 정해 와서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p>
--	--	--

2주차	일시	4월 13일 13 :30 zoom(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유빈	○
		정아림	○
박채은		○	
조의진		○	
진도	도서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진도페이지: 69 p. ~ 162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의진, 정아림, 김유빈, 박채은]</p> <p>정아림 Q: 1. 주인공은 이성에 대한 매력과 가치관을 자신의 가정환경과 대입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의 가정환경이 성인이 된 후 애정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극복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나요? 정아림 A: 가정환경은 성인이 된 후 애정관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평생 노력하며 마주해야 하는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의진 A: 가정환경은 분명 큰 영향을 주지만, 이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p>		

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를 만나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반대로 더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극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채은 A:가정환경은 한 사람의 초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이 현재를 계속 지배하지 않도록 해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유빈 A:가정환경은 성인이 된 후의 애정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이 부모의 관계를 떠올리며 사랑을 해석하는 모습에서도 영향은 드러나지만, 이후의 경험과 선택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요한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급으로 나누며 그에 따라 인간을 주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있으며 이런 사고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유리한 방식과 불리한 방식 어떤 쪽에 더 치우쳐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아림 A:현대 사회에서는 오마카세, 회원 전용 공간, 명품 소비처럼 특정 취향과 소비를 SNS에 전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끊임없는 비교를 낳고 배려나 연대의 감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방식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조의진 A:이런 사고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빠르게 구분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크다고 봅니다.

박채은 A: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시선은 학벌, 직업, 소비 수준, 외모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람의 진심이나 의외성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편견 속에 갇히게 하므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김유빈 A:현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사람을 경제력, 외모, 배경 등으로 구분하고 선입견을 갖는 태도로 자주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세상을 편하게 이해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편견을 강화하고 관계를 좁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조의진 Q:

1. 우리는 종종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사회적 기준(외모, 학벌, 재력 등)에 맞지 않을 때,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묘한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급 때문일까요?

정아림 A:이 감정은 사회가 은연중에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급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준을 내면화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조의진 A:저는 개인의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기준도 영향을 주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기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개인의 자존감조차 사회적 기준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압력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SNS가 어떤 가치를 계속 평가절하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김유빈 A:저는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준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시대마다 기준을 바꾸며 사람을 압박하고, 자존감은 그 기준에 얼마나 흔들릴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2.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요한의 말처럼 실제로 사람 만날 때 조건이나 배경이 비슷한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이 상관없는 만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정아림 A:저는 조건이나 배경이 비슷한 관계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대등한 관계는 드물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배경이 현실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조의진 A:저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달라도 관계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오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저는 조건이 다른 만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한 배경이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서로를 개인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편견을 견딜 수 있다면 다른 배경의 만남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빈 A:저는 조건이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환경이 비슷하면 가치관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어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에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김유빈 Q:

1. 주인공이 '그녀'를 처음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들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연민일까, 호기심일까, 호감일까? 혹은 다른 무언가의 감정일까?

정아림 A:저는 주인공이 그녀를 처음 인식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익숙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를 보며 낯섬과 경외에 가까운 관심을 느꼈다고 봅니다.

조의진 A:처음에는 호기심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서사를 따라가며 보면 그 감정에는 연민도 조금 섞여 있었고, 점차 사랑으로 발전해 갔다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저는 호기심과 연민이 함께 있었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보며 단순한 낯섬뿐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이 일부 겹쳐 보였고, 그래서 더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김유빈 A:저는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호감, 혹은 사랑의 시작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첫눈에 반하다'라는 말을 부정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를 본 순간의 감정은 더 특별하고 깊은 반응이었다고 느꼈습니다.

2. 지금까지의 전개상으로 요한은 어떤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작가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야기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아림 A:요한은 세상의 현실을 일찍 깨닫고 사람을 냉정하게 분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요한을 통해 현실적이지만 삭막한 가치관의 한계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아가는 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봅니다.

조의진 A:요한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요한을 주인공과 그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우리 사회의 현실적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로 넣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은 A:아직은 요한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인공에게 자극과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 보입니다.
 작가는 요한을 통해 주인공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서사 전개에 긴장과 대비를 더하려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빈 A:요한은 자유롭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우면서도,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오래 이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요한을 주인공과 그녀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적 존재로 배치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고자 한 것 같다고 봅니다.

박채은 Q:

1. 주인공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초기에 호기심과 연민이 섞여 있다. 누군가의 결핍이나 상처에 끌리는 마음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일종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감정일까?

정아림 A: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 우월감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으려는 감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에 끌리는 마음은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방식이 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조의진 A:저는 서로의 결핍을 보고 끌리는 마음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박채은 A:저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결핍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상처와 닮은 점을 발견했고, 그런 동질감이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김유빈 A:사랑은 시작되는 계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핍이나 상처에 끌린다고 해서 덜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의 경우에도 외모와 가정환경의 요소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감정 자체는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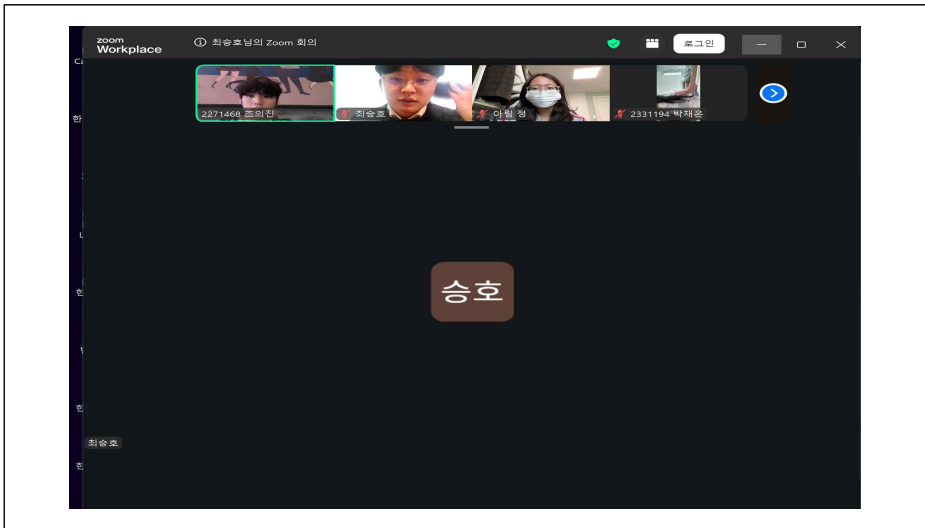
2. 3,4,5장에서 이 소설은 계속하여 사회적 지위나 외모의 이야기를 강조한다. 사회적 지위나 외모라는 라벨을 떼어냈을 때 남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정아림 A:저는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욕망과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라벨이 사라져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욕망이 가장 근본에 남는다고 봅니다.

조의진 A: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와 내면의 진실성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나 지위를 걷어내고 나면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본질적인 가치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박채은 A: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사람만의 서사와 정서적 공감 능력이

	<p>라고 생각합니다.</p> <p>라벨을 벗기고 나면 한 사람이 지나온 시간, 상처, 그리고 타인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하게 남는다고 봅니다.</p> <p>김유빈 A: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p> <p>사회적 지위나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공감 능력, 진정성 같은 내면의 요소는 오래 남는 가치라고 봅니다.</p>
--	--

3주차	일시	5월 4일 13 : 30 zoom(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유빈	X
		정아림	O
		박채은	O
조의진		O	
진도	도서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진도페이지: 123 p. ~ 304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의진, 정아림, 박채은]</p> <p>정아림 Q:</p> <p>1. 요한은 남을 비웃는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뒷담화나 외모 지적도 본질적으로는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것일까요?</p> <p>정아림 A: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신경쓰는 결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함을 채우려는 심리에 의해 지적과 뒷말이 비롯되었다고 느꼈습니다.</p> <p>조의진 A: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웃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인다.</p> <p>박채은 A: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맞다고 봄.</p> <p>본디 본인의 결점을 남에게 투영하기 때문에.</p> <p>2. 책에서는 다른 가치보다도 삶의 의미가 곧 사랑을 위해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p> <p>정아림 A: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며 인생의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p>		

조의진 A: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박채은 A: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고 보다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조의진 Q:

1. 소설 속 세 사람에게 '딸기밭'은 서로의 결점이나 사회적 잣대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나답게 있을 수 있는 '딸기밭'이 있나요?

정아림 A: 아직은 찾고 있으며 그걸 찾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조의진 A: 저는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쉬거나, 운동하는 것이 저의 딸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딸기밭이 있어야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채은 A: 있다. 함께하는 강아지와 단 둘이 있는 것. 또한 딸기밭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함. 딸기밭을 추억하며, 딸기를 더 심기 위해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김유빈 Q:

1. 책에서 말하는 '딸기밭'은 무엇을 뜻할까? 각 등장인물들의 딸기밭은 무엇일까?

정아림 A: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곳.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 나는 그녀와 진실된 연결로 이어지는 곳, 요한은 현실의 비극에서도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며 사는 곳

조의진 A:

박채은 A: 앞에서 나열한 친구와 같이 자신이 한 때 가장 빛났던 순간. 다시 추억하게 될 때 가장 그리운 순간

2. 8장에서 왜 여자주인공은 자신의 얘기를 직접 말하는 방식이 아닌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을까?

정아림 A: 자신이 얼굴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진실된 말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의진 A: 편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서.

박채은 A: 단순한 이별의 장면이라기 보단 살아가며 외면해온 감정들을 끌어내고,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나열한 장치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말하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한게 아닌지


박채은 Q:

1. 요한은 사랑을 받는 인간은 빛을 발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빛이 꺼졌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면 미인도 불을 밝힌 평범한 여자보다도 추한 존재로 전락한다 말했는데, 이러한 요한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아림 A: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결국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요한에 입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조의진 A: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랑받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p>박채은 A:요한의 입장에 반대한다.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사랑받기 위해 빛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p> <p>2. 자신의 딸기밭에 다다른, 해서 익어가는 자신의 딸기를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p> <p>정아림 A: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소중하게 대하는 성숙한 삶을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p> <p>조의진 A: 자기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또 지나간 추억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p> <p>박채은 A: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는 사람</p>
--	--	--

4주차	일시	5월 11일 13: 30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유림	○
		정아림	○
		박채은	○
조의진		○	
진도	도서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진도페이지: 305 p. ~ 마지막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의진, 김유빈, 정아림, 박채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정아림Q: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들은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보다 오히려 현실의 벽과 자신의 한계를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는 힘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고 보시나요?</p> <p>정아림 A:저는 이 작품에서 사랑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는 힘이가기보다, 오히려 현실과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 잠시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각자가 가진 결핍과 사회적 조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p>		

조의진 A:저는 이 작품에서 사랑이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는 힘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실과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 잠시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각자가 가진 결핍과 사회적 조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김유빈 A:이 작품의 사랑은 구원과 현실 인식이 동시에 담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들은 사랑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과 세계를 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저는 사랑이 단순한 구원이라기보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인물들이 자기 상처와 한계를 외면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의진Q:후반부를 읽으며 생각했을 때, 주인공과 그녀의 관계는 처음의 감정과 비교해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서로의 결핍과 이상을 투영한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시나요?

정아림 A: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끌린 감정의 바탕에는 여전히 결핍과 이상화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관계를 끝까지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조의진 A:처음보다는 분명 더 깊어졌지만, 완전히 성숙한 사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동시에 각자의 결핍을 상대에게 기대고 투영하는 면도 계속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김유빈 A: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의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랑이 깊어진 만큼 서로의 상처도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함께 존재하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감정이 연민과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깊어진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김유빈Q:『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왜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결말은 정말 제목 그대로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러니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아림 A:저는 이 표현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결말이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물들의 상처와 현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의진 A:저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해피엔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도, 이전보다 조금은 다른 자리에서 자신을 받아들일게 된 결말이라고 봤습니다.

김유빈 A:저는 작가가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결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결말은 단순히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복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만의 현실적인 해피엔딩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채은 A: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인물들이 서로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채은Q:이 작품은 결국 외모와 사회적 조건을 넘어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끝내 우리는 타인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나요?

정아림 A:저는 결국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상처와 욕망, 경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완전한 이해에는 닿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조의진 A: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빈 A:이 작품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는 시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더라도 그 한계 속에서 가까워지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채은 A:저는 외모와 조건을 넘어 한 인간을 더 깊게 이해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이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타인을 모두 알 수는 없어도, 라벨 너머의 서사와 상처를 바라보려는 태도가 진정한 관계의 시작임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조익진 (2271468)	독서토론 활동을 하면서 오랜만에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가끔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각자의 질문과 생각을 나누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답변이 나온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졌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활동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
	2	박채은 (2331194)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스를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을수록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독서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외모보다 한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독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	김유빈 (2411121)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과 해석이 나온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혼자 읽을 때보다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읽은 후 영화를 감상하며 인물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4	정아림 (2651075)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며 외모지상주의라는 잣대를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성찰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